



계시록에 나타난 구약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9년 6월 29일

1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는 세 가지의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1.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2. 모든 성경의 중심 인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아라는 것입니다.
3. 성경은 진정 기록된 그대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생각보다 훨씬 문자적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하나의 증거로, 계시록에 인용된 구약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천사 YHVH

계시록 1 장에서, 예수아께서는 스스로를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묘사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처음”이라는 말은 “창세기” 책을 가리키는 명칭과 같습니다. 예수아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동일하십니다.

계 1:13-16에 나타난 예수아에 대한 묘사는, **단 10:4-7**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난 불의 사람과 같습니다. 요한에게 나타나신 분께서 다니엘에게도 나타나신 것입니다. 계시록 1 장의 목적은 구약 전체에 천사 YHVH 로 나타나신 예수아의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 상징주의

요한 계시록의 사건들에는 유대 성전에서 볼 수 있는 심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성막을 지었고, 다윗은 성전을 지었는데 모두 하늘의 양식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출 25:40, 대상 28:11**). **계 11:19, 15:8**에서, 요한은

하늘의 장막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요한이 계시록에서 본 영원한 영계 (靈界)의 양식을 따라 지은 것입니다.

계 1-2 장에서, 예수아께서는 금 촛대 사이에 서 계십니다. 그 금 촛대는 성전 등잔대의 천상판 (天上版)입니다. 금 촛대는 예수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 붙은 일곱 공동체 (참된 교회) 가운데 서 계신 것을 나타냅니다.

계 16 장의 진노의 대접은 성전 봉사 때 제사장들이 사용한 성기 (聖器)와 같은 것입니다.

계 8:3-5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내며, 그것은 성전에 드러졌던 향의 예언적 성취입니다. 성전의 향과 성도들의 기도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을 때 함께 올라 갔습니다 (**눅 1:10**).

요한에게 성전 마당을 측량하라고 하시는 **계 11:1-2**에 나오듯,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면 천사들의 역사, 성도들의 기도, 유대 제사 예식이라는 3겹줄이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

계시록에는 일곱 단위로 하늘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 **계 4:8-11**
2. "합당하신 어린 양" - **계 5:9-14**
3. "구원하심이 ...에게 있도다" - **계 7:10-12**
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 **계 11:17-18**
5. "크고 놀라우시도다" - **계 15:3-4**
6. "구원과 영광" (심판 받은 음녀) - **계 19:1-2**
7. "주께서 통치하시도다" (준비된 신부) - **계 19:6**

이 땅의 성도들이 하늘의 천사들과 더불어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는 또한 고대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 교회의 예배의 조화입니다. **계 15:3** -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

나팔 불기

계 8-11 장의 일곱 쇼파르 (나팔)는 여리고 전투에서 불었던 나팔과 비교됩니다 (수 6). 나팔 소리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아닌, 이 땅을 정복했다는 예언적 표시입니다 (**계 11:15**에 기록된 대로 일곱째 나팔 소리에 그렇게 했음). 계시록의 나팔들은 예수아와 성도로 구성된 그분의 군대가 이 지구를 곧 다시 취할 것에 대한 예언적 선포입니다.

계시록의 나팔들은 나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의미는 계시록의 나팔과 관련된 환란 심판 가운데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과거뿐 아니라 장래에 예언적 의미를 가진 "선택된 때"입니다.

유월절과의 대비

계 15-16 장에 나오는 재앙들은 **출 7-11 장**에 나오는 재앙들과 유사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정부를 맞선 것은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를 맞선 것과 같습니다 (**계 11, 13**). 계시록의 재앙들은 적그리스도가 성도에 대해 일으키는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들에 대해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출 12:12**).

이스라엘 자손들은 재앙 중에 고센에서 보호 받음으로, 이집트에 증거가 됐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은 환란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심판으로부터 초자연적 보호를 받아, 구원 받지 못한 세상에 증거가 될 것입니다 (**출 9:6, 10:23, 계 7:3**).

구약의 선지자들

계 5-8 장의 인봉들은 다니엘의 인봉들과 같습니다 (8:26, 12:4, 9).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받았지만, 그 시대에 그것들을 이해하기란 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예언의 의미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계획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봉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적 상징들은 “아무 배경도 없이 나타난” 독립적 신비주의가 아니라, 이전의 모든 예언에 대한 완성이자 절정입니다.

- **계 4 장**의 보좌와 보석으로 장식된 하늘, 그리고 네 생물은 **겔 1 장**에 나오는 것들과 같습니다.
- **계 12 장과 21 장**의 영광스러운 신부는 시온의 딸,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거룩한 여인들의 연속입니다 (호 2:19);
- **계 13 장**의 짐승은 다니엘 3, 7, 8 장에 나온 짐승의 연속입니다.
- **계 14 장**의 추수는 토라의 추수 법에 대한 연장입니다.
- **계 17 장**의 음녀는 이세벨 및 이스라엘의 온갖 부정한 여인들의 연장입니다.
- **계 17-18 장**의 바벨론 심판은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열국에 대한 심판의 연속입니다.
- **계 20:2**의 용은 사탄, 그리고 창 3 장의 뱀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창세기의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 요한 계시록의 최종 결실까지 자라 나갑니다.

(2부는 다음 주에...)